

초근대성의 비장소 춤 공간 확장의 의미*

**
고 현 정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춤과 장소의 관계
	III. 초근대성과 춤의 장소
	I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수

논문투고일 : 2022.11.03

논문심사일 : 2022.11.06

게재확정일 : 2022.12.13

Exploring the meaning of expanding dance space in non-places of supermodernity

Go, Hyeon-jeong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l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modern culture, philosophy, and anthropology. The governance structure by the expansion of contemporary space raises the question of cultural theorist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place's existential and cultural identity, emphasising the importance of place. The contemporaries have been organised in a number of and diversely separate places that meet different purposes and interests and require an organisation of passage and transportation connecting them. An anthropologist Agué, M. (2017) calls 'non-place' that has no movement and permanence, and is defined by their connectivity to other places.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place and space of dance are considered in non-place, a place with a paradoxical sense of 'somewhere' and 'anywhere' at the same time, where there are no clear features, and few reflect the environment of their unique area. Therefore, based on the concept of Augé, M.(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academic area of dance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spaces of dance in non-places expanding in modern society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inner experience of dance.

First, the concept of space and place is consider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place of arts is discussed to provid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Second, to examine the change of place in d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dance and place is discussed in a shared place. Third, based on the concept of a place of supermodernity, for the discourse of dance space in non-place, the boundaries between non-place and place are analysed, and the implications of space in non-place are considered.

〈key words〉 supermodernity, non-places, place, space, intersubjectivity, dance

〈주요어〉 초근대성, 비장소, 장소, 공간, 상호주관성, 춤

장소는 현대 문화와 철학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역사와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장소라는 용어는 수많은 인류학자, 철학자, 문화이론가에 의해 주목되었다. 급변하는 사회와 급속도로 빨라진 이동속도로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동시대에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공간은 장소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공간, 그리고 문화가 체화되어 있는 장소의 상호성은 본 연구에서 춤의 확장된 연구 공간을 가져다 준다. 동시대 공간의 확장에 의한 지배구조는 문화 이론가들에게 장소의 실존적이고 문화적 정체성의 의미에 대해 재구성하도록 문제를 제기하며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시대는 서로 다른 목적과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다수의 그리고 다양하게 분리된 장소에서 조직되어왔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와 교통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동시대에 이러한 장소는 과잉으로 나타나며 초근대성에 기인한다. 인류학자 Augé, M.(2017)은 움직임과 영속성이 없으며 다른 장소와의 연결성에 의해 정의되는 장소들을 '비장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비장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특징이 없고 그들이 있는 독특한 지역의 환경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곳, '어딘가'와 '어디에'가 동시에 있는 역설적인 감각을 가진 곳인 비장소에 춤의 장소와 공간의 함의를 고찰한다.

이러한 구성은 사회적, 문화적 담론을 물리적 장소와 추상적 공간을 연결하려는 춤의 관계적-물질적 접근법에 의존한다(Massey, D.B.,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ugé, M.(2017)의 개념을 토대로 공간과 장소의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통해 배치되는 춤의 물질적 특성과 내적 경험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대사회에 확장되고 있는 비장소에서의 춤이 어떤 기능과 공간을 갖는지의 분석을 토대로 춤 장소와 공간의 함의를 고찰하여 무용의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한다.

첫째,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고찰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의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논의한다.

둘째, 춤에서 장소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공유된 장소에서 물질적 춤과 장소의 관계를 논의한다.

셋째, 초근대성 장소의 개념을 토대로 춤 공간의 담론을 위해 초근대성의 비장

소와 장소의 경계를 분석하고 물질적, 경험적 공간을 내포한 비장소 춤의 공간적 함의를 고찰한다.

II / 춤과 장소의 관계

장소와 공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공간이라는 용어는 장소라는 용어보다는 추상적 의미를 지니는데, Augé, M.(2017)는 장소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영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면서 정체성과 연관 짓는다. 그는 장소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특별한 명칭이 있는 장소의 신화, 혹은 유명한 장소의 역사를 참조”(Augé, M., 2017:102)한다면서 건축과 예술을 통해 역사의 위대한 시대를 상기시키며,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나라, 역사,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므로 그곳에 살아온 경험을 체화한다고 논의한다. 사실, 장소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문화 지리학자 Massey, D.(2005:4)는 장소를 항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을 가지며 단지 물리적 구조물로만 생성된 곳이 아닌 사회적으로 건설·조직된 공간이라 보고 “사회적 형태를 구성하는 물리적 현실”(Lefebvre, H., 1991:53)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장소는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 장소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사는 곳을 경험하며 알고 있는 방식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장소를 논의할 때 물리적 요소만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듣고 볼 때 느껴지는 연관성과 감정도 포함한다. Augé, M.(2017)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하여 장소에 대한 감각은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암시하므로 장소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논의한다. 장소의 이러한 관계는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활동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적으로 포함되므로 강한 상호간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소는 서서히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경험을 체화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한편 Augé, M.(2017)는 이에 반해 공간은 “하나의 영역, 두 개의 사물이나 두 지점 간의 거리, 또는 시간적 크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2017:105)라며 장소와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분석한 지리학자 Tuan, Y.(2001)는 “우주는 열려 있다; 그것은 미래를 암시하고 행동을 요구한다”(2001: 54)면서 공간은 자유, 장소는 문화라고 개념 짓는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으로 중요한 유산적 가치를 지니

고 있는 장소는 Tuan, Y.(2001:54)에 의하면 “고정된 정의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확립된 가치의 중심”이다. 장소의 문화적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동시대에 공간의 확장은 두 개념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며 모호성을 확산한다. 인류학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와 추상적 개념의 공간 사이의 의존성은 하나의 관행이 다른 공간 맥락으로 대체될 경우 “장소, 신체, 활동 및 사회적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생각을 활성화”(Massey, D.B., 2005:43) 한다. 따라서 장소와 공간은 이미 “체화된 절차와 일시적인 절차 사이의 특정 관계”(Massey, D.B., 2005:29)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으로 예술작품과 현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춤 공연은 최상의 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된 프로시니엄 극장 무대라는 장소에서 공연해 왔다. 무용수는 무대에서 춤을 추며 “열정, 활력, 유창함, 확장성 또는 위엄”(Beardsley, M.C., 1982:35)을 느끼며 연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력의 과잉이나 움직임의 과잉의 공간”(Beardsley, M.C., 1982:35)을 확장한다. 관객은 이러한 무용수의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그 장소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함께 무용수와 관객과의 상호연관적 공간이 확장된다(고현정, 2019 참조).

그러나 동시대 춤이 행해지는 장소는 이러한 프로시니엄 무대라는 장소로 국한되지 않는다. 장소의 감각은 새로운 기술, 합리화된 조직, 그리고 경제적 변화에 의해 부과된 정착지의 재구성으로부터 파생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유목 공간을 만들어내고 춤 장소의 세계가 좌식 세계에서 유목 세계로 이행하도록 만든다. 스펙타클의 부정, 포스트모더니즘 춤을 대표하는 안무가 Rainer, Y.는 보행자 길을 걸으며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움직임을 춤으로 만들어 일상적인 사회적 경험을 춤에 동화시킨다. 이렇게 공공장소로 이동한 춤 공연은 물질적으로 공유된 장소에서 특별히 예술 경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전문적 무대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공공장소에서의 춤은 Beardsley, M.C.(1982)가 논의하는 ‘과잉’이 드러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Dancing in Peckham>은 쇼핑몰의 공공장소에 지극히 사적인 춤을 추며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의 충돌을 표현한다. 일상적인 자신의 사적인 모습을 공공장소에서 추며 경험의 체화로 인간의 행동과 습관을 규범 짓는 장소의 개념에서 자신의 감정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모순을 보여준다. Banes, S.(1994) 또한 춤은 과잉과 열정의 특성을 가진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라, “춤이 생산된 예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명제에서 쉽게 안정적인 특정 논쟁적 약속을 암시하는 움직임의 문제”(Banes, S., 1994:14)라면서 움직임이 내포하는 문화, 사회적 이슈 등을 중시한다. 이렇게 예술이 어떻게 인식되고, 정의되고, 생산되고, 표현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모양을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것은 인간 - 특히 무용에서는 무용수의 움직임 - 만이 아니다. 발제주의에서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지

가 발달하듯이, Merleau-Ponty(1962)가 살아있는 신체에 주관성을 찾아냄으로써, 우리 주변 세계와 우리 환경에 내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향하는 감각적인 몸에서 사고와 느낌의 능력을 찾아내듯이, 춤의 형태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이미지는 장소에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낸다. 장소는 우리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장소 안에서 행동하고, 사용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 혹은 제한에 관여”(Massey, D.B., 2005:32)하기 때문에 춤과 장소는 서로 직접적인 공간적 관계에 있다고 논의할 수 있다.

III 초근대성과 춤의 장소

동시대 춤이 행해지는 장소는 더는 물리적 세계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크린을 이용한 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관객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가상세계의 공간은 점점 더 커지며 빠른 속도로 현실 세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머물게 유도한다. 소셜 네트워크 내의 개인 생각의 공간은 단어, 텍스트, 이미지 및 링크가 극도로 촘촘히 네트워크화된 유형의 소셜 플레이어 사이를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며 장소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 발달된 교통수단에 의한 급속한 이동속도 증가는 시간, 역사의 가속화, 그리고 정보의 손쉬운 접근성으로 정보와 사건의 증식이 가능하며 과도한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특성을 Augé, M.(2017)은 초근대성의 사회라고 한다. 그는 초근대성을 “시간의 과도함”(43)과 “공간의 과도함”(44) 그리고 “준거의 개인화”(55)로 규정하며 시간의 이해에 대한 과도함과 공간적 과잉으로 더 복잡해진 동시대 장소를 논의한다. 빠른 이동수단과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과잉은 엄청난 변화로 귀결된다. Augé, M.(2017)에 따르면 초근대성의 과잉은 비장소 - 일시적이고 의미가 사라진 기능적 장소 - 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초근대성과 공간 생산의 현대적 실천에 의해 창조된 그의 대표적인 비장소인 공항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문화적 특색이 없는 장소로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쉬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때문에 공항은 어포던스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사실, 공항, 터미널, 아울렛 등의 대표적인 비장소 외에 인터넷과 가상세계와 같은 새로운 통신기술의 흐름의 장소, 광고, 영화와 같은 곳이 비장소를 지배하는 동시대에 비장소의 개념은 경계의 모호성이 보인다.

Augé, M.(2017)에 따르면, 인류학적 장소는 유기적으로 문화적 환경(cultural mi-

lieu)을 조성하는 반면, 비장소는 인류학적 장소와는 대조되는 장소로 승객, 여행자, 소비자의 단독 계약성을 조성한다. Augé, M.(2017)은 장소와 비장소의 대조된 개념을 논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장소가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장소의 형태가 그것이 담고 있는 것 - 인간의 문화 - 에 의해 형성된다면, 특히나 비장소가 거대하게 확장되고 있는 초근대성의 시대에 비장소를 실제 장소에 비해 문화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인간의 경험 밖 또는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Foucault, M. & Miskowiec, J.(1986)는 비록 Augé, M.(2017)의 비장소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소는 장소와 비장소가 아닌 곳으로 묶여 있고 문화 풍경의 변혁이 점차 세계화되고 이질적인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나 인터넷은 모든 객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장소의 공간(space of emplacement)”(Foucault, M. & Miskowiec, J., 1986:22)을 실천하면서 개인은 장소와 비장소가 상호 작용하여 일종의 통합이 필요한 도시의 이질성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며 장소와 비장소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구성을 강조한다.

세계화의 현재 형태를 이전의 것과 구별하는 것은 Augé, M.(2017)이 ‘비장소’라고 부르는 것의 세계적인 확산이다. Augé, M.(2017)에 의하면 비장소의 확산은 이제 초근대성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규모에 도달하였고, 교통과 통신의 기술적 발전은 장소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논의한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장소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익명으로 상호작용하는 ‘사이트’로 구성된 하나의 장소라 불리는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사용기록을 생성하고 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활동의 실제 역사는 사용이 계속되고 변화함에 따라 사라지는, 친밀한 의미에서 어떠한 관계나 정체성도 맺지 않는 일시적인 장소로, 비장소와 초근대성의 결합으로 보여진다. 현대 디지털과 가상세계는 동시대 장소의 일부가 되었고, 빠르게 생겨나고 빠르게 소멸되는 일시성으로 공간 인식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세계 비장소를 빈번하게 형성한다. 그 결과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인 현실의 대체물로 스크린이 공간적 과잉을 가져온다.

쇼핑센터, 기차역, 공항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비장소가 춤을 추는 장소가 된 것은 분명하다. 발달된 편집기술로 현실세계에서 보여질 수 없는 다양한 효과로 화려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 스크린 무용의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현실 세계와 다르게 개념 지어야 하는(고현정, 2014 참조) 스크린에서의 춤인 무용 필름도 인터넷과 가상세계라는 비장소에 위치한다. 이는 “의무에서 자유로운 구역”(Augé, M., 2017:122)으로 춤이 ‘소속’하지 않은 곳이지만, 오히려 의무에서 자유롭고,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 인터넷이라는 공공공간을 공동공간으로 춤을 추는 장

소가 될 수 있게 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열어준다. 비장소가 확장되는 초근대성의 동시대에 춤은 비장소에서 일률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역사의 틀에 의해 정체성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아닌, 몸의 경험으로 자유로운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의 확산으로 인한 비장소의 과잉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 힘들어지면서 익명의 토론 게시판, 소셜 미디어, 파일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에서 네트워크화된 공공으로 개인에게 자유로운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비록 특정 경로만 따를 수 있는 비장소에서는 익명으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항에서의 출입국관리, 여권의 세계적인 위계질서, 인터넷 웹상의 계획된 구획을 따른 활동 등에 의해 분류되는 규제와 규율 그리고 감시를 통한 어포던스가 구성되어 있어서 완전한 ‘자유’의 장소가 아니다. 공항과 쇼핑몰 그리고 인터넷 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비자의 움직임, 몸짓, 그리고 신체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포던스 장소를 설계하여 인간 행동을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 경계를 넘어 의사소통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예술가들은 종종 전통적인 사고의 해방자 역할을 한다”(Finkelpearl, T., 2001:xi). 춤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일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이 체화된 존재로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속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용수는 춤으로 그들의 경험을 전시하며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여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공유된 문화적, 사회적 의미가 없는,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인간 관행의 잔여물이 축적되지 않은 인공적 표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비장소에서 춤은 몸 표현을 통해 사고하는 무용수,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내재된 비무용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유된 공간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관계를 제시하며 사람, 장소, 환경 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의 관습 그리고 전통에 따른 사고방식과 같이 공항에서의 이동을 위한 일률적인 장소에서의 일률적 경험을 유도하는 공항에서 춤은 자유로운 움직임의 몸 경험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생성한다. 보는 이의 동의나 허가 없이 나타나며 춤이 속하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장소에서의 춤은 무언의 배제를 오히려 강조하며 비장소의 일시성 요구에 접근하지 않고 자유의 사회 문화적 공간을 생성한다. 비장소의 어포던스에 익숙한 대중은 기존의 감각에서 통일되어 일률적으로 행동했던 부분을 춤이라는 공간을 통해 일률적 감시와 규제에 통합하지 않게 되며 자유의 공간을 생성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항상 사회적 차원의 일부이며, 예술가가 창조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영향을 투영”하고 있다(Finkelpearl, T.,

2001:287).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비장소에서의 춤은 이러한 이념과 함께 대중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확장하며 비장소에서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인터넷을 포함한 비장소에서의 춤은 그러므로 움직임과 테크닉 중점이 아닌 장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패러다임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형성되는 비장소에서의 모호한 경험과 어포던스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에 수용성을 유지하면서 춤의 잠재된 기능을 가지고 비장소의 환경에 접근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문화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비장소에서 자유의 춤으로, 표현의 자유와 공존하는 감시 - 예를 들면 공항에서의 규율과 머무르지 않는 일시성 - 둘 사이의 불협화음의 대립과 수용의 에너지와 자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비장소에서의 춤은 규율과 감시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상호주관적 관계를 확장하며 관객과 무용수의 간극을 넓히고 일탈을 위한 공간을 열며 비장소의 어포던스에 적용된 제스처와 리듬으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감각의 지도를 재구성하는 자유의 공간을 가진다.

IV 결론

개인적 감정이지만 집단적으로 공유되는 감정 체계는 특별히 공유된 사회·문화적 의미가 없는, 장소가 아닌 곳이라고 불리는 비장소에서 독특한 상호주관적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춤이 인간의 사회적 과정뿐만 아니라 장소의 위치에서 생성되는 공간으로써 진행 중인 과정으로 분석하여 비장소 춤의 공간적 의미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는다.

첫째, 장소는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적으로 포함되어 경험을 체화하므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도 논의된다.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유를, 장소는 문화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빠른 이동과 일률적 장소의 확장으로 문화적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동시대에 공간의 확장은 두 개념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며 모호성을 확산한다. 인류학적 의미를 지니는 장소와 추상적 개념의 공간 사이의 의존성은 서로 다른 맥락으로 대체될 경우 활동 및 사회적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하므로 장소와 공간은 이미 체화된 절차와 일시적인 절차 사이의 특정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으로 예술작품 - 특히 일시성과 체화를 포함하는 춤 - 과 현장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에 타당성을 제공한다.

둘째, 공공장소로 이동한 춤 공연은 물질적으로 공유된 장소에서 특별히 예술 경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춤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일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이 체화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용수는 춤으로 그들의 경험을 전시하며 관객과 공유하는 장소에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여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한다. 장소는 우리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장소 안에서 행동하고, 사용하는 가능성 혹은 제한에 관여하기 때문에 춤과 장소는 서로 직접적인 공간적 관계에 있다고 논의할 수 있다.

셋째, 비장소와 인류학적 장소는 초근대성의 과잉으로 복잡해지며 모호한 경계를 가진다. 개인은 장소와 비장소가 상호 작용하여 일종의 통합이 필요한 도시의 이질성을 통해 장소와 비장소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구성을 경험하는데, 공유된 사회·문화적 의미가 없으며 인간 관행의 잔여물이 축적되지 않은 인공적 표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비장소에서의 춤은 몸 표현을 통해 사고하는 무용수,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내재된 비무용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유된 공간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관계를 제시하며 사람, 장소, 환경 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자유의 장소 같지만 어포던스를 설계하여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비장소에서 춤은 규율과 감시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통한 상호주관적 관계를 확장하며 관객과 무용수의 간극을 넓히고 일탈을 위한 공간을 연다. 비장소의 어포던스에 적용된 제스처와 리듬으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감각의 지도를 재구성하는 자유의 공간을 가지므로, 춤은 비장소가 가지고 있는 선제적 규율의 경험의 수용을 유지하면서 감시와 자유 내에서 대립과 수용의 에너지 공간을 제공한다.

- 고현정(2014), “무용필름의 시공간 분석을 통한 정체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77-95.
- _____(2019), “체화를 통한 무용 의사전달의 존재론적 가치 고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1)**, 41-53.
- Augé, M.(1992), *Non-Place*, 이상길, 이윤영(역, 2017), **비장소: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서울:아카넷.
- Beardsley, M.C., (1982), “What is going on in a Dance?”, *Dance Resesarch Journal 15(1)*, 31-36.
- Finkelpearl, T.(2001), *Dialogues in Public Art: Interviews with Vito Acconci, John Ahearn*, Cambridge, Mass: MIT Press.
- Foucault, M. & Mis-kowiec, J.(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5(1)*, 22-27.
- Lefebvre, H.(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Press.
- Massey, D. B.(2005), *For Space*, London: Sage.
- Merleau-Ponty, M.(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ledge.
- Tuan, Yi-Fu.(2001),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print(1977).